

##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2.12월]

- 국제유가, 잠재 위험요인과 연말 효과 등으로 불안정한 움직임 예상 -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동향

- [원자재지수] 11월 S&P GSCI는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등으로 한 달 만에 하락(-2.5%). 에너지와 농산물 부문이 약세를 주도한 가운데 산업금속과 귀금속 부문은 반등
  - 부문별로 에너지 -5.7%, 농산물 -1.7%, 산업금속 +11.9%, 귀금속 +7.9% 등
  - 금년 누적 상승률은 S&P GSCI +10.7%, 에너지 +18.8%, 농산물 +5.5%, 산업금속 -10.2%
- [품목별] WTI -6.9%, 美 천연가스 +9.0%, 유럽천연가스 +66.7%, 亞 휘발유 -0.7%, 옥수수 -4.3%, 소맥 -12.6%, 대두 +4.4%, 구리 +7.9%, 알루미늄 +7.1%, 니켈 +23.2% 등
  -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은 러시아의 추가 공급 중단 조치에 기인. 美 천연가스 가격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상승

### 주요 이슈 및 전망

- [원유] 중국 코로나 상황이 핵심 변수인 가운데 EU의 러시아 원유금수 조치 시행, 서방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추진, FOMC 회의 등 영향력이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 12월 국제원유시장은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거래량이 줄어드는 연말 효과가 겹칠 경우 국제유가는 상당한 등락폭을 나타낼 소지. 전체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곡물] 일부 지역의 가뭄 등 상방압력이 상존하나 북반구 수확 종료 및 흑해 곡물수출협정 타결 등으로 글로벌 곡물가격의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곡물의 생장이 본궤도에 진입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작황이 가격 향방에 중요 변수. 특히 아르헨티나의 가뭄 개선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비철금속] 국제비철금속 가격은 중국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다만 세계경제 여건 상 추세 전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
  - 전월초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이 가격 급등세를 촉발하고, 중반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가 하락세를 유발했던 상황이 반복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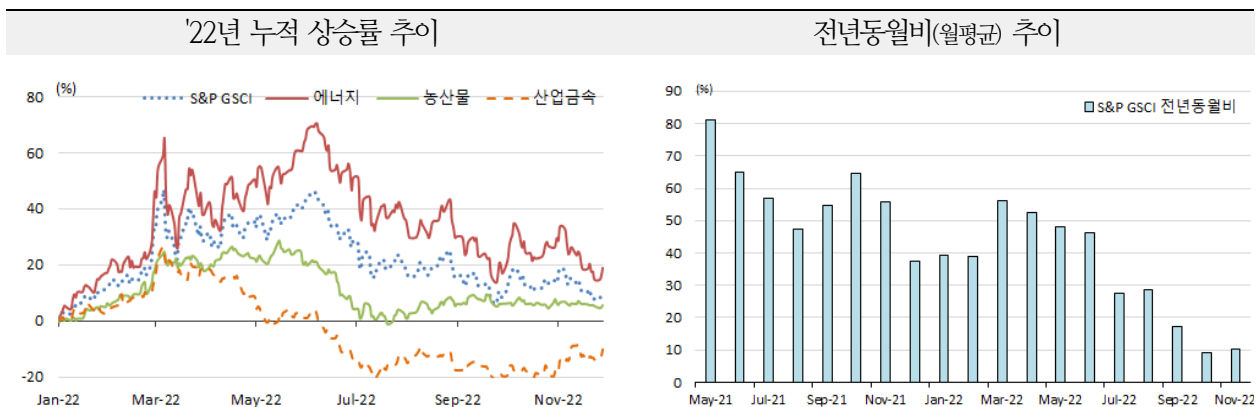
## 1.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 □ S&P GSCI 추이

- 11월 S&P GSCI는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등으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2.5%). 에너지와 농산물 부문이 약세를 주도한 가운데 산업금속과 귀금속 부문은 반등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지수	10월말	11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동월비(%)
S&P GSCI*	636.84	621.11	-2.5	10.7	18.9
에너지	317.91	299.85	-5.7	18.8	31.5
농산물	472.75	464.65	-1.7	4.4	7.6
산업금속	400.88	448.39	11.9	-10.2	-5.7
귀금속	2127.40	2294.95	7.9	-4.0	-1.3
축산물	344.95	349.80	1.4	8.7	10.6

\* WTI, 美천연가스, 소맥, 옥수수, 원당, 구리, 니켈,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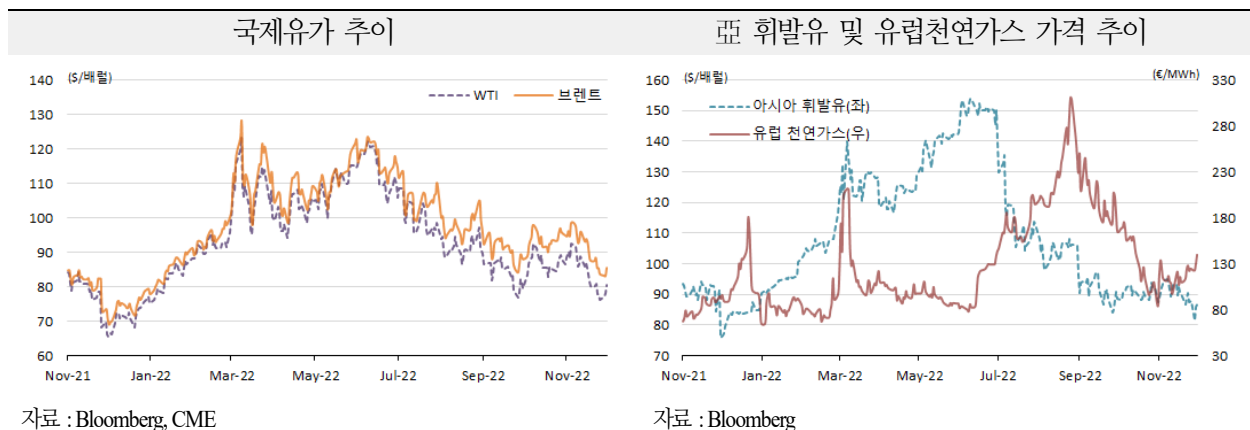
## 2. 원유

### □ [11월 시황] WTI 전월말 대비 -6.9%, 亞 휘발유 -0.7%, 유럽 천연가스 +66.7%

- WTI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에도 불구하고 中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수요위축 우려 등으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
-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추가 공급중단 조치 등으로 70% 가까이 급등. 美 천연가스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반등. 亞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

품목	10월말	11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WTI(\$)	86.53	80.55	-6.9	7.1	21.7	68.08	95.96
브렌트(\$)	94.83	85.43	-9.9	9.8	21.1	70.95	100.61
두바이(\$)	90.04	80.21	-10.9	4.9	13.0	69.01	98.97
美휘발유(\$)	118.05	101.58	-14.0	8.5	22.1	89.13	127.51
亞휘발유(\$)	87.34	86.73	-0.7	-4.0	14.5	76.97	112.03
美천연가스(\$)	6.36	6.93	9.0	85.8	51.7	3.723	6.613
유럽천연가스(€)	84.0	140.0	66.7	113.7	51.8	47.38	13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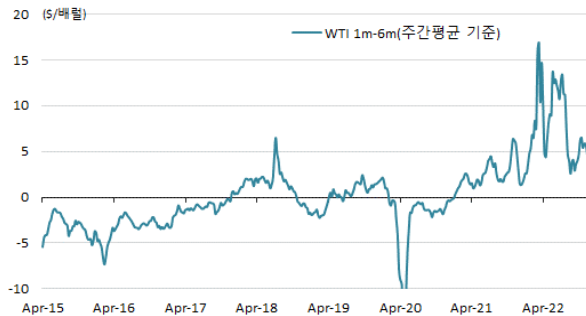
주 : NYMEX-ICE 선물가격 기준(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 단 두바이유, 亞휘발유(Ron 92 기준)는 현물가격. 자료 : Bloomberg



### □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

- WTI 선물시장 지표 : 백워드이션 축소(포워드 커브 평탄화), 금융자금은 큰 변동 없음
  - WTI 1개월물과 6개월물 스프레드(1m-6m)는 11월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넷째 주에 \$0.64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 기록 → 실물수급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10월 중순 이후 3억배럴 내외에서 소폭의 유입과 유출을 반복 → 금융투자자들의 관망 분위기를 반영

WTI 선물 1m-6m 추이



자료 : Bloomberg, CME

WTI 선물옵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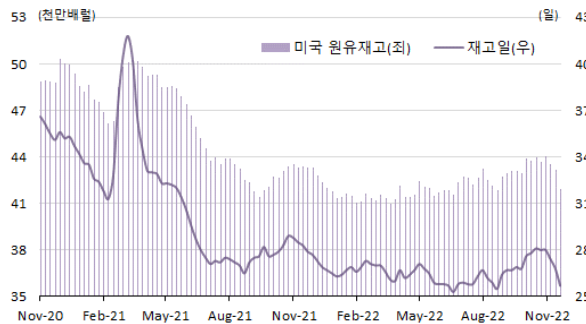


자료 : CFTC, Bloomberg

## ○ 미국 실물지표 : 원유재고 감소, 석유제품재고 증가. 생산은 큰 변동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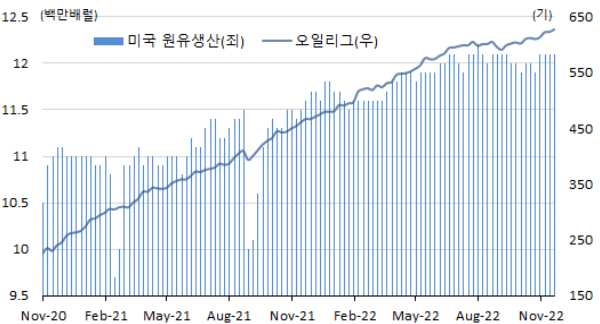
- 원유재고는 11.25일 4.19억배럴로 10월말 대비 4.1% 감소하며 금년 평균(4.22억)을 하회. 반면 증류유재고는 1.13억배럴로 5.5% 증가하며 금년 평균(1.12억)을 회복
- 원유생산은 11.25일 일일 1,210만배럴로 10월말 대비 20만배럴 늘었으나 전반적인 정체국면 지속. 시추기(oil rig)는 627기로 9월 중순 이후 증가세 지속
- 원유수요(4주 평균)는 11.25일 일일 2,049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1.8%.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은 414만배럴과 618만배럴로 전월말보다 +3.2%, +2.0% 기록

미국 원유 재고 추이



자료 : EIA

미국 원유 생산 및 시추기 추이



자료 : Bloomberg

## ○ OPEC 및 중국 지표 : 사우디 OSP(對亞 12월인도분) 하향조정, 중국 수입 5개월 만에 증가

	8월	9월	10월	비고
OPEC생산(일 백만배럴)*	29.65	29.70	29.49	• 사우디아라비아 감소, 이라크나이지리아 증가
사우디 생산*	10.93	10.99	10.84	• 전월대비 일 -14.9만배럴
사우디 OSP(對亞)**	\$5.9(10월인도)	\$5.9(11월인도)	\$5.5(12월인도)	• 작년 동월보다는 \$2.8 높은 수준
중국 원유수입(백만톤)**	40.35	40.24	43.14	• 전년동월 대비 +14%(연간으로는 -2.8%)

주 : OSP(Official Selling Price)는 두바이유/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 자료 : \*OPEC, \*\*Bloomberg

## □ [이달의 관전포인트]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中 코로나 확산세, OPEC+ 회의, 등

-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관련 불확실성
  - 서방은 러시아의 석유판매 수입 축소와 재정 압박을 통해 전쟁 수행능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12.5일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와 함께 유가 상한제 시행을 추진
  - 하지만 ▲11월말 현재 합의 실패에 따른 시행 지연 가능성 ▲上限 가격의 유효성 논란 ▲러시아의 상한제 참여 국가에 대한 공급 중단 경고 ▲중국과 인도의 동참 여부 등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는 원유수요에 최대 부정적 요인
  - 11.27일 현재 신규 감염자가 4만명에 근접하면서 주요 도시에서 봉쇄를 강화. 이에 따라 3분기 중 증가세로 전환되었던 중국 수요가 4분기에는 재차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  
※중국 수요 증가율(yoy) : 1분기 -0.9%, 2분기 -2.3%, 3분기 +0.8%(EIA)
- OPEC+, 12월 회의에서 감산 기조 유지 가능성
  - 한 때 일일 50만배럴 증산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사우디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이런 가운데 中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추가 감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美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
  - 11월 FOMC 의사록과 월말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르면 12월에는 빅스텝(50bp) 인상이 유력. 다만 금리 인상 지속 및 최종 금리의 상향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매파적 기조는 유지될 전망

## □ [전망] 中 코로나 상황이 핵심 변수인 가운데, EU의 러시아 원유금수 조치 시행, 서방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추진, FOMC 회의 등 영향력이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 12월 국제원유시장은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거래량이 줄어드는 연말 효과가 겹칠 경우 국제유가는 상당한 등락폭을 나타낼 소지. 전체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11월(a) <sup>1)</sup>	'22.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WTI	84.39	90(-)	90(-)	88.1(-1)	88.6(-1.2)
브렌트	90.85	94(-1)	95(-)	94.9(+0.4)	92(-1.5)

주: 1) 1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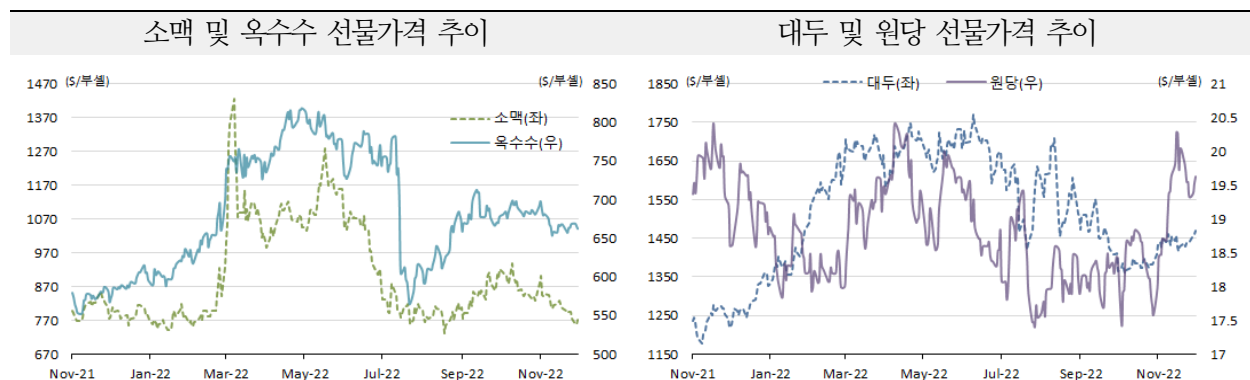
### 3. 곡물

#### □ [11월 현황] CBOT 소맥 전월 대비 -12.6%, 옥수수 -4.3%, 대두 +4.4%

- 소맥 선물가격은 세계공급 전망 상향조정, 흑해 곡물수출협정 연장, EU 수출 증가 기대감 등으로 비교적 큰 폭 하락하며 3개월래 최저치 수준으로 후퇴
- 옥수수도 흑해 곡물수출협정 연장의 영향 속에 국제유가 약세도 하락요인으로 작용. 대두는 中 수입수요 부진 예상 불구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2개월 연속 반등

품목	10월말	11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소맥(cents/부셸)	882.25	771.50	-12.6	0.1	-0.3	702.0	915.68
옥수수(cents/부셸)	691.50	662.00	-4.3	11.6	16.8	581.9	697.81
대두(cents/부셸)	1407.00	1469.50	4.4	10.6	20.7	1374.7	1557.62
쌀(\$/cwt)	16.56	17.81	7.5	21.7	26.9	13.3	16.44
원당(cents/파운드)	17.97	19.63	9.2	4.0	5.5	17.9	18.71

주 : CBOT-ICE 선물가격 기준. 부셸은 27.2kg, cwt는 45.4k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 Bloomberg, CBOT, ICE

#### □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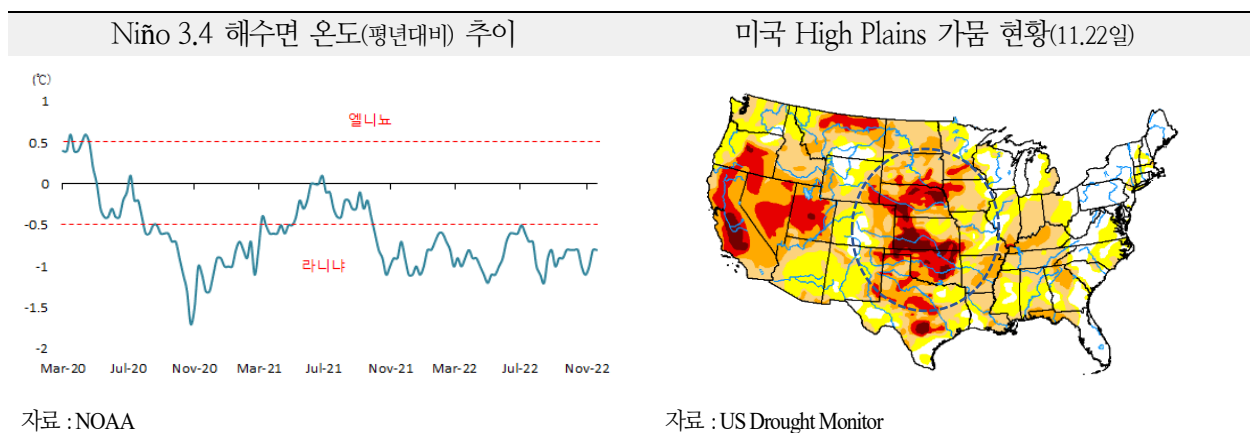
- 美 곡물 수확 및 품질 : 옥수수 수확률은 11.20일 96%로 예년(90%)보다 빠르게 마감. 파종이 끝난 겨울밀의 품질은 전년동기보다 10%p 낮은 상황

	겨울밀(Winter Wheat) 품질(%)				
	Very poor	Poor	Fair	Good	Excellent
11.27일	10	16	40	28	6
작년동기	8	15	33	38	6
11월초	15	19	36	25	5

자료 : USDA



- 중국 곡물 수입 : 10월 옥수수 및 대두 수입 감소, 브라질산 옥수수 12월부터 수입 시작
  - 옥수수 수입은 전월 대비 -64%와 전년동월 대비 -58%, 대두는 -46%와 -19% 기록. 반면 소맥은 수요 증가 및 재고 비축 등으로 전월보다 236% 증가(1월 이후 최고치)
  - 한편 중국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우크라이나 수입선을 대체하기 위해 12월부터 처음으로 브라질산 옥수수 수입을 시작할 예정
- 농업기상여건 : 美 겨울밀 재배지역 가뭄 심화, 아르헨티나 가뭄 지속, 라니냐 지속
  - 미 겨울밀 주요 재배지역인 High Plains의 가뭄비율은 9월 중순 이후 90%를 상회. 아르헨티나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대두 파종이 지연(11월 넷째 주까지 파종률 19%, 전년비 -20%p).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C 이하인 라니냐 현상도 지속



- 세계 곡물수급 : '22/'23년 세계 재고 전망 하향조정, 대두 재고 전망은 상향

&lt;세계 곡물수급 전망(억톤)&gt;

	'21/22	'22/'23		전년비	전월비		'21/22	'22/'23		전년비	전월비
		10월	11월					10월	11월		
<b>곡물</b>						<b>소맥</b>					
생산	27.98	27.47	27.46	-1.9%	-0.02%	생산	7.79	7.82	7.83	0.4%	0.1%
소비	28.05	27.75	27.77	-1.0%	0.1%	소비	7.94	7.90	7.91	-0.3%	0.1%
기말재고	7.94	7.66	7.63	-3.9%	-0.3%	기말재고	2.76	2.68	2.68	-3.1%	0.1%
재고율	28.3%	27.6%	27.5%	-0.8%p	-0.1%p	재고율	34.8%	33.9%	33.9%	-0.9%p	-
<b>옥수수</b>						<b>대두</b>					
생산	12.17	11.69	11.68	-4.0%	-0.03%	생산	3.56	3.91	3.91	9.8%	-0.1%
소비	12.03	11.75	11.75	-2.3%	0.1%	소비	3.63	3.80	3.80	4.7%	0.0%
기말재고	3.08	3.01	3.01	-2.2%	-0.1%	기말재고	0.95	1.01	1.02	7.9%	1.6%
재고율	25.6%	25.6%	25.6%	-	-	재고율	26.1%	26.4%	26.9%	+0.8%p	+0.5%p

자료: USDA WASDE('22.11월)

## □ [이달의 관전포인트] 러-우 곡물수출협정 연장, 美 철도노조 파업, 中 수입선 다변화 등

-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곡물수출 협정 4개월 연장
  -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UN은 곡물수출협정을 120일간 연장하는데 합의. 서방은 러시아의 곡물 및 비료 수출을 막지 않겠다고 서면 합의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한시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세계 곡물수급 불균형과 저개발국에서의 식량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美 철도노조 파업 시 곡물수출 차질 불가피. 미시시피강 수위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
  - 美 철도노조는 12.9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 화물운송의 30%를 담당하는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 곡물 운송 및 수출에 큰 차질 우려
  - 10월 중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던 미시시피강 수위가 11월에는 강우 및 준설 작업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소 상승함에 따라 곡물 운송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對브라질 곡물수입 내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 12월 중에 옥수수 수입이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에만 500만톤에 달할 가능성. 이는 '22/23년 中 전체 수입 1,800만톤의 28%에 해당(Brazil 곡물수출협회)
  - 중국은 70%에 달하는 미국산 옥수수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브라질산 수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전망(Reuters)
- 아르헨티나 소맥 생산, 가뭄으로 큰 폭 감소 전망
  - '22/23년 소맥 생산 전망은 최근 1,180만톤으로 기존보다 14% 하향조정(Rosario Grain Exchange). 아르헨티나 수출의 세계 비중(8%)을 감안하면 글로벌 공급부족이 우려

## □ [전망] 일부 지역의 가뭄 등 상방압력이 상존하나 북반구 수확 종료 및 흑해 곡물수출 협정 타결 등으로 글로벌 곡물가격의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곡물의 생장이 본궤도에 진입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작황이 가격 향방에 중요 변수. 특히 아르헨티나의 가뭄 개선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cents/부셸)〉

	11월(a) <sup>1)</sup>	'22.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소맥	812.10	862.3(-)	825(-42)	860(-21)	780(-80)
옥수수	668.24	650(-)	650(-)	655(-)	575(-28)
대두	1,442.01	1,380(+30)	1,363(-)	1,360(-)	1,300(-20)

주: 1) 1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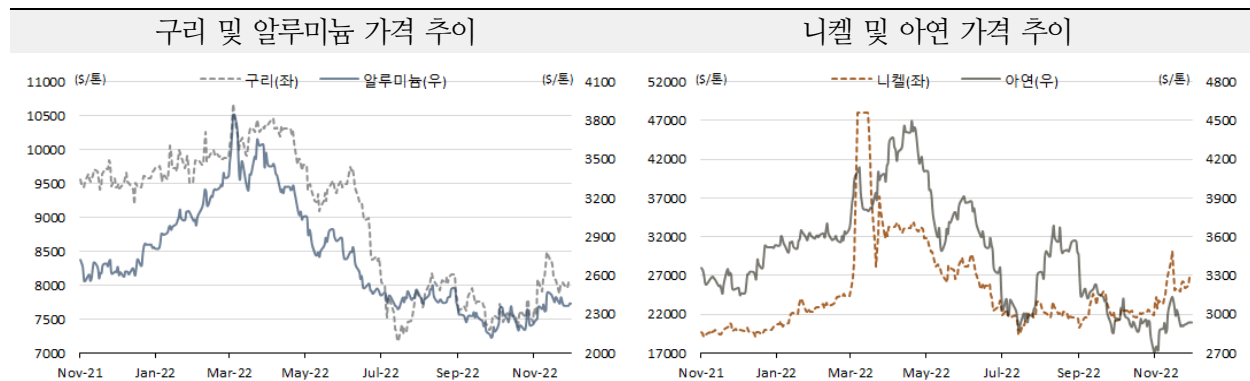
## 4. 비철금속

### □ [11월 현황]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7.9%, 알루미늄 +7.1%, 니켈 +23.2% 등

- 비철금속 가격은 中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등으로 월 중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中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등으로 상승폭 축소
- 구리 가격은 11.11일 \$8,493으로 4개월래 최고치 기록 후 월 후반 \$8,000선으로 후퇴. 니켈 가격도 7개월 만에 \$30,000 상회 후 차익매물 등으로 \$27,000선으로 반락

품목	10월말	11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구리(\$/톤)	7,450	8,038	7.9	-17.3	-14.9	9,293.5	8,824.3
알루미늄(\$/톤)	2,222	2,380	7.1	-15.2	-9.4	2,485.9	2,736.0
니켈(\$/톤)	21,809	26,861	23.2	29.4	35.0	18,466.9	25,298.5
아연(\$/톤)	2,697	2,935	8.8	-17.0	-8.3	3,007.3	3,470.5
납(\$/톤)	1,973	2,135	8.2	-7.4	-6.2	2,189.4	2,138.9
금(\$/온스)	1,633.56	1,768.52	8.3	-3.3	-0.3	1,799.3	1,802.9
철광석(\$/톤)	78.91	96.04	21.7	-15.8	1.7	136.0	113.7

주 :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 기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LME

자료 : Bloomberg, 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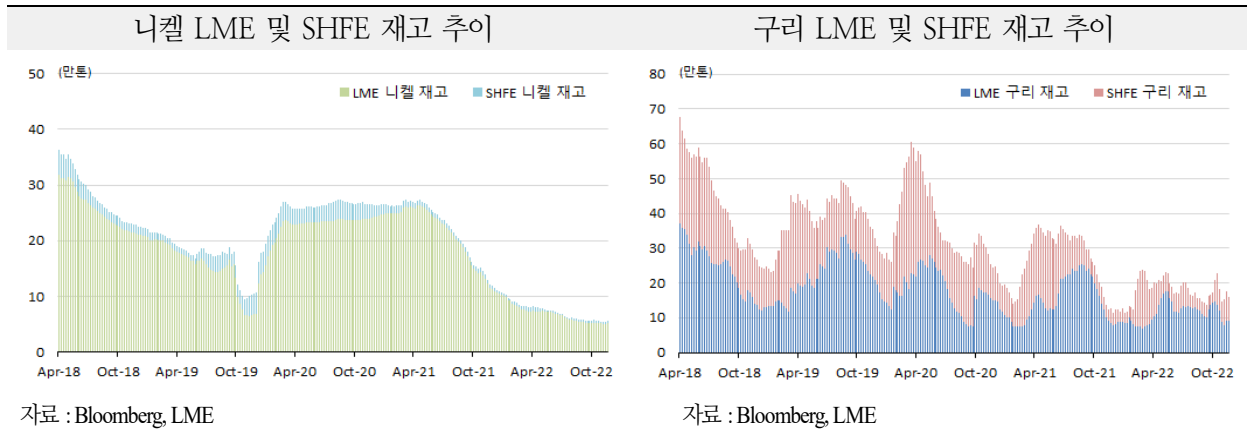
### □ 주요 지표 점검

- 중국 경기 : 제조업지수 부진, 산업생산 둔화, 신규 주택가격 7개월 연속 하락

	9월	10월	11월	비고
차이신 PMI	48.1	49.2	49.4	• 4개월 연속 기준선(50) 하회
산업생산(% yoy)	6.3%	5.0%	-	• 10월 예상치(5.2%) 하회
기준 주택가격(% mom)	-0.39%	-0.47%	-	• 70개 주요 대도시 기준, 15개월 연속 (-)

자료 : Bloomberg

- 거래소 재고 : 모든 품목들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 SHFE 니켈 재고는 11.25일 3,291톤으로 바닥 수준이며 LME 재고도 14년래 최저치.
  - 구리 재고는 11월 중 LME와 SHFE에서 미미하게 증가



## □ [이달의 관전포인트] 中 부동산 부양책 효과, 中 전기차 시장 전망, 재고 재비축 등

- 중국 부동산 부양책,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부작용은 노출
  - 중국 정부는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5년물 대출 우대금리 인하, 주담대 가산금리 인하,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했으나 높은 주택가격 경계감 등으로 아직까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반면, 정책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외국인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 되면서 중국정부의 정책 딜레마가 심화될 소지
- 중국 전기차 시장 내년에도 빠른 성장 예상
  - 새로운 모델의 출시, 소비자들의 선호 증가 등으로 중국 승용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금년 27%에서 내년 3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Fitch). 이는 니켈, 구리 등 관련 비철금속 수요에 긍정적 요인
  - 다만 내년 전체 승용차 판매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부진으로 소폭 감소할 가능성
- 내년 중 재고 재비축(restocking)이 본격화될 소지
  - 주요 비철금속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비축 과정이 진행될 전망. 특히 중국은 경제 리오프닝에 맞춰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 중국이 팬데믹 이전으로 재고/소비 비율(stock-to-consumption ratio)을 높일 경우 알루미늄 85만톤, 구리 51만톤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전망(Goldman Sachs)
- 칠레 Escondida 광산(세계 최대 구리광산) 노사합의로 파업위기 모면

- 노조는 BHP社와 쟁점이었던 광부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합의. 이에 따라 11월말 예정되었던 파업을 철회

□ [전망]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다만 세계경제 여건 상 추세 전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

- 낮은 재고 수준, 연준 속도조절 기대감 등으로 연말 저가매수세 유입 기대
  - 니켈을 제외한 비철금속 가격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기피 심리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저가매수세 유입과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
- 중국 코로나 상황 변화 시 가격 변동성 대폭 확대 소지
  - 전월초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이 비철금속 급등세를 촉발하고, 중반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가 하락세를 유발했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 특히 중국 당국이 시위 사태에 대해 어떤 결정(강경 대응 또는 봉쇄 완화)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단 또는 하단이 깊어질 가능성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톤)〉

	11월(a) <sup>1)</sup>	'22.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3Q(f) <sup>2)</sup>
구리	8,048.2	7,400(-)	7,131(-219)	7,400(-)	7,500(-217)
알루미늄	2,368.0	2,200(-)	2,150(-)	2,267(-)	2,350(-25)
니켈	25,605.6	21,369(+261)	20,188(+188)	20,281(+281)	20,938(-120)
아연	2,924.6	3,100(-)	3,000(-)	3,000(-)	3,100(-33)

주: 1) 11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혹은 js@kcf.or.kr, 홈페이지: www.kcf.or.kr